탐구, 자각, 체득

| **김흥호** |

진리를 향한 길은 탐구를 통해 자각하고 그 후 실천을 통해 체득함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마태복음 7:1~8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과 주기도문의 말씀을 합한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올바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라' 그 말이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왜 들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시고, 또 잘못 구해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지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성령을 받으면 다 받은 것이지요. 그 이상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다가도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주신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보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독

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핵심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는 이 말을 알아야 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는가. 가장 좋은 성령까지 주신다는 말을 잘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늘 하고 있어요. 이제 방금도 기도했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기도란 '기祈' 하면 '빌 기'도 되지만 '바랄 기'도 돼요. 바라는 거지요. 소원이란 말입니다. '도禱'란 말도 물론 '빌 도'이지만 나는 '길 도道' 자를 써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것은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자꾸 도道를 얻고 싶어 하지요. 공자님은 도道라고 불렀는데 요즘 말로 바꾸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진리를 받고 싶다는 거지요. 이 말을 진리 탐구로 바꿀 수도 있어요. 기도란 바로 '진리 탐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에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왜 오셨는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지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는 것 전체가 기도입니다. 여기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일체가 기도지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한마디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거지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유이지요.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

엇인가. 자유이지요. 자유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진리를 찾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생활 전체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기도였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일생이 기도이고, 바울 선생의 일생이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 이 순서에 상관없이 나는 제일 처음에 "찾아라, 만날 것이요"를 놓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맨 끝에 "구하라, 얻을 것이요"를 놓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보통 먼저 그것을 탐구하지요. 탐探 자가 찾는 것이고, 구究 자가 구하는 것이지만 '탐' 자를 조금 앞세웁시다.

첫째는 진리를 탐구한다. 둘째는 진리를 자각한다. 셋째는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지요. 진리를 내가 몸으로 얻어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다 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요. 진리를 찾고, 진리가 열리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전한다. 이 네 가지예요.

먼저 진리를 찾는 이야기부터 합시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진리를 찾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꿀 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꿀 송이보다 더 달아요.

나는 갓 나서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벌써 63세예요. 이제 2년만 있으면 나는 이화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말할 기회가 2년밖에 없어요. 이 4학기 동안에 여러분께 할 말을 다 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까지 내내 교회에 다녔어요. 아마 여기 송 장로님도 그러실 거예요. 63세가 되기까지 내내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도 계속 재미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반에서 김동길 선생의 강의를 듣고 왔지만 계속 재미있지 재미없는 때가 없어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신 할머니가 81세예요. 81세 되신 할머니도 갓 나서부터 듣는 설교인데 아침부터 계속 듣고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보통 재미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대학교회에서는 낮 예배 한 번밖에 없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는 아침부터 주일학교, 밤에 또 예배, 그리고 속회가 있고, 가끔 부흥회 있고, 사경회 있고, 모이는 것이 여간 많지 않아요. 그것을 모두 따라 다니면서 들었는데도 지금 실컷 들었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없어요. 계속 재미있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늙었지만 과학은 한 3년 하면 대개 짐작이 가요. 또 철학은 6년 정도 하면 짐작이 가는데 이 종교의 세계만은 12년 하지 않으면 짐작이 안 갑니다.

나는 종교의 세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어려워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이 말부터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공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논어에 보면 "부지언不知言이면 부지인不知人이다." 즉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술 더 떠요. 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말이 알아지면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깊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 경험으로 보면 바로 선생이에요.

난 어렸을 때 우리 교회의 목사님인 이피득 목사님을 기억해요. 또 평양에서는 남산현교회의 오기선 목사님, 오숙경 선생님의 할아버지시고 오천석 박사님의 아버지시지요. 또 이윤영 목사님.

그리고 저는 대학을 일본에서 다녔는데 그때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의 제자인 총본이란 사람이 유명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10시에 시작하는데 언제나 정각에 문을 잠급니다. 조금만 지각을 해도 못 들어가요. 또 들어오는 순서대로 앉아요. 지금처럼 "자리를 정리합시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헌금도 들어올 때 '입장료'라고 쓴 곳에 넣어요. 처음에는 30전이었다가 나중에 50전이 되었어요. 입장료 50전을 꼭 내야만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예배시간은 꼭 2시간이에요.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는 계속 성경 말씀을 하셨어요. 2시간 계속한 거지요. 이분의 말씀을 대학 6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 것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해방이 된 후에 동경 제국대학의 총장이 된 시내원失內原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강좌도 들었어요. 시내원 선생이나 총본 선생의 설교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화여대 도서관에 『시내원 전집』 24권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듣던 산상수훈도 그대로 나왔지요. 녹음을 해서 다시 옮겨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새 읽어보면 참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것을 그때는 왜 그렇게 재미있어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방이 되어 이남에 왔는데 그때는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그래 부흥회에 참 많이 쫓아 다녔습니다. 박재봉 목사님을 따라 많이 쫓아다녔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스탠리 존즈Stanley Jones의 부흥회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는 『인도 도상의 그리스도』란 책을 썼고, 간디의 친구

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부흥회 때 제일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난 사람이 함석헌 선생이에요. 함 선생은 세브란스 의전 옆의 에비슨 홀에서 이사야를 강의하셨어요. 겨울에 영하 20도로 내려가도 불을 못 땠을 때입니다. 그래도 매주 200명씩 꽉 찼지요. 김동길 선생도 그때 거기 나왔어요. 그때도 참 재미있었어요.

함석헌 선생의 선생님이 또 있어요. 유영모 선생이라구요. YMCA에서 35년간 성경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니도 그때 유영모의 선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빠지지 않은 분이 바로 이 할머니와 함석헌 선생이었어요. 그 선생님의 말씀을 한 6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진리 탐구입니다. 진리를 한참 탐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진리의 자각이라는 것이 나와요. 진리가 보이는 거지요. 듣는 계단을 지나니까 진리가 보이는 계단이 나오는 거지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성령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깨비 만난 것처럼 갑자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본다는 것은 진리를 본다는 거지요. 진리의 자각이에요. 마음 문이 열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진리의 자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둘째 계단이에요.

그 다음이 '진리의 체득'입니다. 진리를 몸소 실행해 보는 거지요. 아까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진리의 탐구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때 나는 성경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에 빨간줄을 많이 그었어요. 그런데 선생

눈을 뜬 다음의 체득이란 진리를 가지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살아보는 것은 코가 뚫리는 거예요. 살려면 코가 뚫려야 숨 쉬고 살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귀가 뚫리는 이것을 '총聰'이라고 하고,
다음에는 눈이 뚫리는데 이것을 '명明'이라 합니다.

님 성경을 보면 내 성경에 그은 것은 선생님 성경에는 하나도 그어져 있지 않고, 선생님 성경에 그어져 있는 것은 내 성경에 하나도 줄이 그어져 있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선생님은 중요한 것을 찾아 그 줄에만 표시를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못 본다 그 말이지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야지요. 선생님을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공자 같은 이도 선생을 만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을 만나야 해요.

제가 요새 붓글씨를 배우는데 선생을 만났어요. 선생을 만나니까 글씨가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선생을 만나니까 뭐가 됩니다. 만일 나 혼자 썼다고 하면 뭐 바르는 거지 쓰는 것이겠습니까.

앞서 가신 분들, 우리보다 먼저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오래 따르면 저절로 눈이 뜨이는 거예요. 붓글씨를 쓸 때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는 것을 개안開眼이라고 하는데, 개안이란 말을 나는 지금 진리의 자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좀 잘 다니셨겠어요? 12살 때부터 성전에 가서 토론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례요한을 만났지요. 그를 만나서 좀 잘 배웠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진리의 탐구를 마치고 진리의 자각에 들어갔을 때 어땠나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런 말이 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진리의 자각이겠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지요? 바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진리의 체득이지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진리의 탐구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진리의 자각이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진리의 체득이지요. 진리를 체득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체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 네 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네 가지가 결국은 진리의 체득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눈을 뜬 다음의 체득이란 진리를 가지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살아보는 것은 코가 뚫리는 거예요. 살려면 코가 뚫려야 숨 쉬고 살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귀가 뚫리는 이것을 '총聰'이라고 하고, 다음에는 눈이 뚫리는데 이것을 '명明'이라 하고, 코가 뚫리는 것을 '전顫'이라고 그래요. 또 입이 뚫리는 것을 '감甘'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진리의 탐구, 자각, 체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험을 하셨는가 하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지요. 안 먹고 얼마나 사나. 요새 아일랜드 사람들이 단식투쟁Hunger strike을 합니다. 대개 얼마 동안 사느냐 하면 72일 동안 산다고 해요. 72일 만에 죽어요.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며칠 안 먹으면 죽는가. 72일 동안 안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은 40일까지 해보셨어요. 아, 40일 안 먹어도 사는구나. 도대체 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야단들인가. 체득해 보는 거지요. 이 먹는 문제, 쉽게 말해서 경제문제를 한번 체득해 보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네 가지를 체득해 보신 겁니다. 경제문제, 정치문제, 문화문제, 사회문제예요. 사회문제,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문화문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와 정치문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와 경제문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을 가져보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이 네 가지를 시험해보는 겁니다. 나는 12년 동안 한 끼 먹는 것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할 자신은 도저히 없어서 12년 동안 한 끼 먹기로 했지요. 이화대학생은 내가 한 끼 먹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사진 찍은 것을 보면 꼭 해골 같아요. 나중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나 하면 저 버스 타는 곳부터 여기까지 올 때 어떤 날은 12번이나 쉬면서 왔어요. 죽게 될 정도였지요. 심지어 내일이면 죽는다 하는 날도 있었어요.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밥을 먹을까 하다가도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또 시험해 보았지요. 체득해 보는 거지요. 내일 죽는 날이니까 먹고 자도 되는데, 에이 죽어도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자요. 안 먹고 그냥 잤는데 그 다음날 죽었나 하면 안 죽었어요. 이런 먹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시험이 바로 체득이에요. 모든 문제에 대해 인생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는 것은 역시 체득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이론만을 들어 압니까. 아니지요. 스스로 체득한 후 이 문제에 관한 내 의견은 이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탐구해야지요. 자각해야지요. 또 체득해야지요. 듣는 것, 보는 것, 사는 것 빼고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진리의 단계는 이렇게 차례차례 밟아나가는 것이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경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듣는 경우에서 보는 경우로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듣는 것은 교회에 나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들으면 되니까 쉬운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 성경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제2단계가 참 어려웠어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때 끊기로 했습니다.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말았지요. 선생에게 그냥 붙어만 있으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떠나야지요. 그래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내 갈대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선생님이 제일 반대한 것이 결혼이었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결혼하지 말래요. 그래서 35살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될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 이제는 선생하고 인연을 끊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서 결혼을 했어요. 어제 11월 28일, 내가 결혼한 지 28년이 되는 날입니다. 결혼하고는 선생님과는 인연을 끊고 가지도 않은 채 지냈어요. 인연을 끊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집어 치우자 했지요.

그런데 집어치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집어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 혼자 찾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8일부터 나 혼자 찾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다음 해 3월 17일 오전 9시 5분이에요. 이때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만난 거예요. 미신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 적어서 선생님께 바쳤습니다. 선생님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책상에다 놓고 나오고 말았지요. 선생님이 나중에 그것을 보고서야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이젠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집 아들들을 모두 결혼시켰어요. 그 맏아들은 42살이나 됐어요. 내가 결혼한 덕이지요. 이거 지금은 모두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다시 진리를 체득한 것이 언제부터였나. 그해 9월 초하루부터였습니다. 9월 초하룻날 한 끼를 먹기를 시작했지요.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고, 그 다음은 보는 세계, 그 다음에는 실천하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야 말하는 세계입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어려워요. 이 네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진리의 탐구, 진리의 자각, 진리의 체득, 진리의 선포, 이것이 기도입니다.(끝)

• 이 글은『김흥호 사상 전집 –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